

대장암 생존을
위해서는 조기
진단이 중요합
니다.



45세부터 검사가 시작됩니다.

45세 이상이거나 더 젊고 다음과 같은 경우 대장암 검사를 받으십시오:

-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
- 만성 위장 문제, 크론병 + IBD가 있는 경우
- 용종,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린치 증후군과 같은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

대장암을 선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검진 시작 시기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검사를 찾아보세요.

- 대장 내시경 검사
- 가상 대장 내시경 검사
- S상 결장경 검사
- 가정 내 대변 검사(DNA, FOBt, FIT)
- 10년 이상 생존자

대장암 생존율은 90% 이상 초기 단계에서 진단됩니다.

결장직장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

- 대변의 피
- 화장실 습관의 변화
- 피로
- 빈혈증
-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
- 지속적인 경련 또는 요통
- 부분 느낌
- 증상 없음